

강진군, 4차 산업혁명 활용방안 탐색 ‘분주’

챗 GPT 시연회·청자축제에 AR보물찾기 등 도입 ‘4차 산업혁명 지원팀’ 신설…군정 전 분야에 활용

강진군이 지난달 챗 GPT 시연회를 가진 데 이어 청자축제에 AR(증강현실) 보물찾기를 도입하는 등 군정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민선 8기에 ‘4차 산업

혁명 지원팀’을 새롭게 꾸려 관광·여행, 식품·유통, 문화·예술, 행정 등 군정 전 분야에 활용해 강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청자축제 AR 보물찾기를 통해 군정에 4차 산업혁명 활용의 새 가능성

을 확인했으며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병영성축제’에도 VR(가상현실) 게임을 새롭게 선보인다.

VR게임은 부스 안에 모니터와 관련 장비가 설치돼 VR안경과 게임기구를 들고 진행하는 신개념 게임 방식으로 흥겨운 K-POP과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9월부터 AI어나운서가 진행하는 ‘AI 군정뉴스’를 현재까지 총 27편 제작해 기관 유튜브로 선보이고 있다.

군은 최근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게임 개발사를 방문해 강진만이 갖고 있는 청자, 영광, 다산 등 차별화 된 자원을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청자, 다산, 영광 등 개발 수 있는 금광이 가득한 곳”이라며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에 ‘강진’을 녹여 차별화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강진군은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행정을 접목하기 위해 ‘챗 GPT’ 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강진군 제공>



진도군은 최근 김희수 군수 주재로 7급 이하 MZ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도군 제공>

김희수 진도군수, MZ 공무원들과 소통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소주제 고민 상담

진도군은 “최근 김희수 군수가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7급 이하 MZ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는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커피와 과일 등을 함께 먹으며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직급, 직렬 등으로 구성된 직원 간담회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라는 소주제로 평소 근무하면서 느꼈던 업무처리 개선방안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나눴다.

특히 인사문제, 후생복지 건의사항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MZ 세대들의 고민거리, 직장 상사들에 대한 바람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군수는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의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관습을 탈피, 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직원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군수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잠재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 발전하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 공감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1조 당 30명씩 직렬별 13개조를 편성해 7급 이하 MZ 공무원 398명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도=박세권기자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보호 앞장

매월 1회 이상 감시·단속활동…캠페인·유해매체물 모니터링도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진)은 “최근 법정면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약품, 유해매체물, 불법고용 등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군 관내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가능업소를 감시·계도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감시·단속활동 및 캠페인,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는 감시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15명이 참여했다.

영광군 법정면 소재 편의점, 음식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와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포함한 유해환경 관련 업소 54곳을 방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계도했다.

김동규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따뜻한 봄 날씨가 완연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도 완화

돼 청소년들의 마음이 많이 들뜰 듯하다”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관내 학부모, 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해남 달마고도서 봄기운 충전하세요”

25일 힐링축제…숲속 버스킹·노르딕 워킹 등 프로그램 다채

해남군이 봄기운으로 가득해 신록이 물드는 달마고도에서 축제를 개최한다.

해남군은 23일 “오는 25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가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다”고 밝혔다.

달마고도는 팥밭마을 절 미황사가 위치한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사진>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팥밭 사람들이 다녔던 옛길을 복원해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조성된 둘레길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장 걷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이에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며 연간 수만명이 찾는 남도 대표 걷기길로 부상한 것은 물론 7시간 코스의 전

체 걷기길 완주자도 2만명이 넘어섰다. 축제는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힐링 음악회를 선보인다.

노르딕 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줄기 챌린지, 해남 특산물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도 마련된다. <해남=박필용기자>



함평군, 일반벼·총체벼 전환 시범사업 실시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함평군이 쌀 적정 수급과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벼 과잉 물량 중 일부를 사전에 수확해 조사료(총체벼)로 활용하는 ‘일반벼·총체벼 전환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전락작물직불제 시행과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안정 시에는 일반 벼(밥쌀)를, 과잉생산 시에는 총체벼(하계조사료)를 수확하게 된다.

군은 축합·조사료경영체와 연계해 제배·수확·사료제조·판매 체계를 구축해 사전 약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20ha를 우선 선정해 추

진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전락작물직불금(430만원·ha) ▲조사료 작업비(최대 199만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총체벼 전환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총체벼 전환 여부는 9월에 결정, 직불금은 12월 내로 지급된다. 단, 일반벼로 결정되더라도 공공비축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함평=김연수기자

완도군, 대규모 행사·축제 대비 도로 정비

5억 투입…주요 관문로 국도·행사장 일원

완도군은 23일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선수단 등이 군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국도변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오는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월12-15일 제6회 전남도민제전, 5월24-26일 제3회

전남장애인제전, 5월1-31일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군은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문로인 국도·행사장 일원 도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정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정비 내용은 ▲관문 시설

정비(대교 내 안전시설물·가로등 교체) ▲국도13호선(차선 도색·방호 매트 교체, 녹색도 보강·계비온 보수) ▲국도77호선(도로 재포장·차선도색, 안전시설물 교체) ▲군도22호선(마라톤 코스 도로 재포장·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다.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청정 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면 청소차,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등을 투입해 겨울 제설 작업 등으로 지저분해진 도로를 청소하고 각종 도로 시설물의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완도=윤보현기자